

“강진에서 행복한 제2의 인생 시작합니다”



강진군은 지난 10일 도시민 12세대를 대상으로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입학생들은 귀농·귀촌을 위해 서울과

예비 귀농·귀촌인 12세대...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학 9개월 동안 강진에 머물며 안정적 정착 위한 교육 받아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도시민으로 총 12세대이다. 9개월 동안 강진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입학식은 입교자, 귀농선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관학교 운영 계획, 입학생 소개 그리고 1기 수료생인 최신만 농가의 정착기를 들으며 마무리 됐다. 입학생들은 3월 한달간 주작목 배움 교실에 13회 참여하면서 작목을 선택하고 4월부터 멘토-멘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 작목 재배 기술 및 영농 노하우, 주변 농가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하는 등 귀농·귀촌 후 영농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 받게 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강진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귀농귀촌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도 만드시길 바란다”며 “더 행복한 인생 2막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체류형귀농사관학교를 통해 강진에 정착한 세대는 17세대 33명이며, 딸기, 작약 등을 재배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 유치면, ‘달달한 청렴데이(Day)’ 운영

장흥군 유치면은 지난 14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시책으로 ‘달달한 청렴데이(Day)’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치면에서는 지난해 직원들이 공모한 청렴 구호를 담은 청렴 초콜릿 등 간식을 주고 받으며 ‘달달한 청렴데이(Day)’를 기념했다. 유치면은 그동안 ‘청렴한 유치의 날’, ‘청렴 구호 공모전’, ‘도란도란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직원들의 화합, 소통을 다지는 한편 청렴마인드를 높여 왔다. 올해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대신 청렴 격언을 주고받는 특별한 기념일을 보내며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깨웠다. 문수연 유치면장은 “장흥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유치면만의 시책을 통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청렴한 유치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상반기 34농가 134명 단기고용 예정...농촌 일손부족 해결 청신호

해남군은 고구마 정식과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적인 농번기철에 앞서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필리핀 세부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체결식에는 명현군 해남군수와 메리 테리스 시토이 조 필리핀 코르도바 시장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관내 34농가에 1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법무부에 도입의향을 제출했으며, 법무부 배정 심사협의회를 통해 신청 인원 전부를 확정 받았다.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요조사 농가와 매칭하고 외국인 이탈 방지를 위해 농촌인력센터와 연계하여 외국인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솟는 인건비와 인력난에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MOU 체결이 농촌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해결로 이어져 농가들의 경영환경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며 “농업교류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이점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 군내면 신기마을,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선정 2025년까지 24억원 투입...해안로 방재시설·마을 안길 정비 등

진도군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군내면 신기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위생 등 중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어촌뉴딜300 연계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번에 최종 대상사업지로 확정됐다. 이번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내면 신기마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마을안길 정비, 해안로 방재시설 설치,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주민편의시설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선정은 중앙평가 설명회를 거쳐 주민주도형 공모방식으로 선정됐다. 지역 주민들은 수시로 모여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주제로 토론하고 군 담당자와 사업 우선 순위 선정을 논의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거·생활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발굴해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8만본 꽃분양 ‘봄맞이 새 단장’ 농업기술센터 가꾼 8종...읍면도 공급

완도군에서 봄맞이 시가지 정비를 위해 봄꽃을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봄꽃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생산 시설(대야리 농업시험포장)에서 지난겨울에 파종하여 정성껏 가꾸어온 리본스터데이지, 금어초 등 총 8종, 8만 본이다. 올해는 새로운 품종으로 프리물러, 라넨쿨러스, 버들마편초가 시험 분양된다. 봄꽃은 국도변 가로 화단 조성을 위해 환경산림과와 읍면도에 공급된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봄꽃 분양을 시작으로 여름꽃 6만 본, 가을꽃 3만 본 등 총 17만 본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이 봄꽃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길 바라며, 화사하고 쾌적한 완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